

2017년 8월 13일 임마누엘 남가주교의 주간메시지

주일 1부 예배

겸손과 순종, 그리고 능력(빌립보서 2:1-11)

▶ 지난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던 모든 증거들을 너에게도 주겠다” 하셨다. 정말로 힘이 나는 말씀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가? 원죄가 일어나기 전에는 인간에게 운명이란 게 없었다. 어느 날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이 일어나고 무슨 짓을 해도 떠나가지 않는 운명 같은 일들 말이다. 어떤 집안에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일어나서 결국 해결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 이렇게 조용히 당할 수밖에 없는 억울한 일들이 전에는 없었다는 말이다. 그런데 원죄 이후에 이런 운명적인 일들이 연속해서 계속 일어나게 되었다. 어린 아이가 사고로 부모를 잃는다거나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로 사업이 망해버린다거나 하는 일들이 평생의 인생에 영향을 주게 된다.

▶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이런 눈으로 보면 그 때부터는 역사 일어난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실에 대해 내가 개인적으로 눈이 열리는 것이다. 여기에 눈이 안 열리면 하나님과 내가 따로 놀게 되어 있다.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도 그리스도가 내 인생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모든 일들이 원죄로 인해 시작되었고 그 배후의 사단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눈이 열려야 한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닌 사단을 죽여야 하고 그 답은 오직 예수라는 답이 열려야 한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일을 완성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이 일에 대한 완전한 답이다.

▶ 마음에 확정을 하기 바란다. 모든 문제는 그냥 두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답이다! 한 마디로 요약한 것이 마태복음 6:33이다. 거기에 생명 걸고 들어가면 모든 문제 해결이다. 어떤 문제 하나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답이 들어와서 영원히 모든 불안, 근심, 염려가 사라지고 답이 되는 것이다!

▶ 내가 기도해서 한 가지 응답을 받았다 해도 문제는 또 온다. 그래서 기도를 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늘 불안할 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답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응답이 지속적으로 오는 것 뿐 아니라 불안 염려를 주는 사단의 머리가 같이 박살 날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영적 summit으로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되면 내 인생에 답이 오고 이제 남은 건 하나님의 시간표이다.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단어이다. **원죄와 운명, 그리스도와 영적 summit.**

1. 겸손과 순종의 능력

겸손과 따라오는 순종에는 능력이 있다.

빌립보서 2:3-5 아무 일에도 자기 다짐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6-8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 기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엄두도 못 낼 일이다. 이 일로 인하여 이 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운명에서 해방되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언약의 죽으심을 통하여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그 울무에서 영원히 해방된 것이다. 세월이 흐를수록 자꾸 더 감사하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최고의 권세를 주신 것이다!

빌립보서 2:9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 그리스도 안에서의 겸손과 순종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죽이면 하나님은 우릴 살려주신다. 예수님을 높이신 것처럼 우릴 높이신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옆에서 속는다. 죽으면 내가 손해 볼 것 같은 생각, 창 3장 체질이 자꾸만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것은 굉장한 지혜이다. 이 사람이 진짜 승리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누리면 이 힘을 주시는데 이것을 몇 년 만 해보면 진짜 맞다는 걸 인정하게 될 것이다. 나는 죽고 언약 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전부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여기에는 굉장한 비밀이 들어있다. 내가 무엇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죽으란 말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이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살어나는 것이다. 참 된 승리는 여기에 있고 이 방법 아니고는 정복까지 도달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릴 높이시고 그 때 우리 머리를 들어주신다.

갈 2: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 내가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것이다. 그게 정복하는 길이다. 첫째로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그러면 기쁘고 감사하게 되어있고 하나님은 이 때 우리를 더 살린다. 이 때 참 승리이고 정복하게 된다. 하나님이 정복하게 해주시기 때문이다. 언약 기도를 강조하는 것은 이 출발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을 맛보기 시작하면 참 고소한 맛을 느낀다. 하나님과 만난다는 그런 맛이 다. 나와 하나님만 만나면 느끼는 아주 고소한 맛!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도록 명령하신 것이다.

마태복음 16:24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 이 말은 자기를 죽이라는 말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도 마찬가지로이다. 그래야 너가 산다는 말이다. 이 때 네가 진짜 산대! 하시는 것, 완전히 죽지 않으면 승리를 얻어도 내가 조금은 노력을 해야 얻는 승리... 이런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길 이 사는 길이고 이 길 외에는 살 길 없다. 그리고 그냥 사는 정도가 아니라 왕 노릇 하고 정복한다. 이 왕노릇은 천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 누리고 언약으로 잡고 나를 누리면 이 땅에서도 왕 노릇 한다. 근데 우리가 이 죽음의 비밀을 좀 건성으로 알아듣는 것 같다. 겸손과 순종에 대해 안다 해도 사실 육신적으로 아는 경우가 많다보니 신앙 색깔도 좀 유교적이다. 그리고 성경 말씀도 행위적으로 많이 이해를 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도 영적 존재 아닌가? 문제도 영적 문제고 거기에 대한 답도 영적인 것이다.

▶ 혹시 다들일이 있으면 자기 바란다.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것이다. 옆에 사람과 싸워가지고 쟁취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이 있는데 왜 싸워서 그 큰 응답을 못 받는가.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내려놓는다면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절대 육신적으로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다.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영적으로 승리한 상태에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다. 사실 그런 일들이 아무 문제 안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성경에만 있는 먼 나라 이야기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혹 타성에 젖어 듣고 있는 분들은 정신 차려야 한다. 이것은 우리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그 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보고 하려면 못 하는데 이것이 되어질 수 있는 답을 주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언약 잡고 우리가 그리스도 누리면 되는 것이다.

2. 그리스도를 누려라.

▶ 나를 죽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사실 모르는 사람이 없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고 작은 일에도 순종하면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좋아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다만 이것을 할 힘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내게 형성된 능력으로 정복하고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 그럼 영적인 것이 배경이 되어주어서 승리하게 된다. 육신적으로 되어지지 않고 영적으로 되어지게 하는 답이 그리스도 누리는 것이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늘 고백하고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겸손할 힘이 생긴다. 그리고 겸손하게 되면 더 힘난다.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나의 순종이 영적인 순종이 될 수 있는 그런 눈이 계속 열려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릴 자꾸 영적으로 발전하게 해 주신다. 우리가 그리스도 누리면 참된 겸손을 알게 되고 참된 순종도 알게 된다. 그리고 그걸 누리는 승리의 비밀도, 정복하는 비밀도 알게 된다. 한 주간 순종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누려라. 그러면 계속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이다.

2017년 8월 13일 임마누엘 남가주교의 주간메시지

일 2부 예배 (임마누엘 1부)

도단성 운동과 다섯 제자 (왕상19:1-8)

◆서론

▶사람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라는 것이 있다. 엘리야, 엘리사는 누구였는가? 그 사람에 대해 하나님이 주시는 이미지가 무엇인가? 예배에는 나의 기준, 수준, 표준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 예배이다. 다섯명이 최고의 위기를 막았다. 엘리야, 아합왕이 하는 것이 틀린 것이다. 앞으로 재앙이 임할 것이었다. 그래서 아합왕을 해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바른 언약을 잡은 것이다. 위기 앞에서 죽음과 상관없이 선택한 인물이 엘리사이다. 그리고 많은 신하들이 먹고 살려고 고생하고 있는데 바른 길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오버다이다. 내가 가진 것이 한끼 먹을것밖에 없지만 사렘다 과부는 엘리야를 도왔다. 내가 겨우겨우 생활하는 공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수넬여인이 엘리사를 도운 것이다. 이 다섯명이 세계를 정복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세상 보는 눈을 열어주셨다. 성공하면 된다가 아니라, 인생 공부를 바르게 하신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눈 열린 다섯명이 나오니까 역사 일어나는 것이다. 렘넌트들은 세상에 가거든 겸손하게, 내용있게 사실대로, 당당하게 나가야 한다. 세계 변화가 일어났다.

1.갈멜산 운동이 일어났다.

▶850명이 주도하고 있는 모든 재앙의 흐름을 막아 버렸다. 여러분을 통해서 흐르는 재앙의 흐름을 막겠다는 것이다.

- 1)하나님 없이 성공한 성공자들- 아합, 이세벨, 신하들, 거짓 선지자들→ 재앙을 만들어냈다.
- 2)하나님은 다섯명을 통해 성공 이후에 오는 문제를 막았다.

2.호렘산 운동

▶그렇게 갈멜산 운동에서 승리하고 나왔는데도 회개하지 않는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당장 죽이라고 나왔다. 그렇게 힘 있던 엘리야도 너무 몰리니까 로뎀나무 밑에 쓰러졌다. 나를 불러 달라고 했다. 더 이상 못한다고... 아니다. 속지말라. 시작이다.

- 1)이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큰 영적인 힘을 주셨다. 그 축복

을 가지고 가라. 호렘산 회복하라.

- 2)하나님이 세미한 가운데 말씀을 주셨다. 너 말고 바알에게 무릎꿇지 않은 사람 7천명을 세워두었다. 왕은 내가 바꾸겠다. 엘리사를 세워라. 여러분의 할 일이 남아 있다. 엘리사를 세워라. 정말로 언약을 알고 있는 후대를 세워라.

3.도단성 운동

▶외부의 재앙을 막은 것이다. 전쟁을 막은 사람들이다. 교회를 회복한 것이다. 여러분의 기도로 재앙을 막을 것이다. 믿으시기 바란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리라. 전쟁, 재앙막는 사람들이다.

- 1)거기에 엘리사와 제자들이 모인 것이다.
- 2)아람군대와 하나님의 군대
- 3)왕하6:16, 23여러분이 받을 축복이다. 싸우지 않고 이겼다. 흑암세력이 무릎 꿇게 했다.

◆결론

▶세상을 향해서 겸손히, 담대히 가라. 여러분을 통해서 재앙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임마누엘 2부)

감람산 성전 (행1:14)

◆서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진짜 축복을 주시느냐?

- 1)영적 전쟁을 실제로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영적 전쟁을 아는 사람을 사탄은 두려워한다. 복음 앞에 사탄은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없다.
- 2)성전 전쟁- 사탄이 성전 전쟁을 벌인다. 어떤 신전을 지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냐? 이 전쟁이다.
- 3)유물 전쟁- 앞으로 어떤 것을 남길 것이냐? 유물 전쟁이다. ▶이때 진짜 응답받는 언약을 잡아야 한다. 부모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아들이 10명이 있다고 하면 누구에게 유산을 주느냐? 재산을 지킬수 있는 사람에게 준다. 하나님이 진짜 축복을 누구에게 맡기시느냐? 복음 가지고 이 싸움을 할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신다. ▶그래서 행1:14, 감람산 성전을 지어라! 지금부터 항상 기도하라.

1.영성 회복의 흐름을 가진 교회 (행1:8)

- 1)모세가 미디안에서 영적인 힘을 회복했고 창세기를 기록했다. 하나님의 진짜 계획을 붙잡으라.
- 2)모세를 호렘산에서 부르셨다. 양의 피제사 드리러 가라. 사탄을 무너뜨리는 제사 드리러 가라.
- 3)시내산에서 영원히 변치않는 말씀을 주시고
- 4)제자들을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서서 굉장한 메시지를 주셨다.
- 5)부활하신 주께서 감람산으로 부르셨다. ▶전도운동 빠르게, 복음전할수 있는 교회, 렘넌트 운동하도록 응답을 주옵소서! 내게 필요한 것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모든 다민족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교회를 주옵소서!

2.개인 치유의 흐름을 가진 교회

- 1)육신 치유(행3:1-12)
- 2)정신 치유(행8:4-8)
- 3)영혼 치유(행8:26-40)

3.다민족 치유의 흐름을 가진 교회

- ▶237개 나라 국기를 걸어 놓고 그들이 와서 예배하고 치유 받을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라.
- 1)마28:16-20, 제자를 찾아라.
 - 2)막16:15-20, 만민에게로 가라. 귀신 쫓아내라. 병든 자를 치유하라.
 - 3)행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고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증인이 되리라.

◆결론

▶나의 기도실, 나의 렘넌트실, 나의 선교실을 남기라.

- 1)제1성전을 만들자.
 - 2)제2성전을 만들자- 전 현장 살리는 것,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 운동.
 - 3)제3의 성전- 해외 살릴 수 있는 축복
- ▶오직 성령충만 받으면 증인이 될 것이다. 임마누엘의 사명자들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붙잡으라. 아무 힘들 것 없다. 언약만 붙잡으면 된다.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죽어가는 사람들 살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